

“쯔쯔가무시증 유행시기 다가온다” 전국 털진드기 감시 시작

- 8월 26일부터 전국 18개 지점에서 털진드기 발생 감시 시작
- 가을철 유행 대비 야외 활동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가을철 유행에 대비하여, 8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16주간) 전국 18개 지점에서 매개체인 털진드기 감시를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 3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7개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력하여 털진드기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매주 감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붙임 1).

감시는 논, 밭, 초지, 수로 등 사람의 야외활동으로 털진드기와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채집된 털진드기의 발생밀도와 종별 분포 등을 분석한다. 매주 확인된 털진드기 감시 결과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의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다. 국내에서는 연간 약 3,000~6,0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증가하는 10월과 11월에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감염 후에는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발열, 두통, 오한, 발진, 림프절 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털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형성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털진드기 유충 해부현미경 사진



털진드기 유충 형광현미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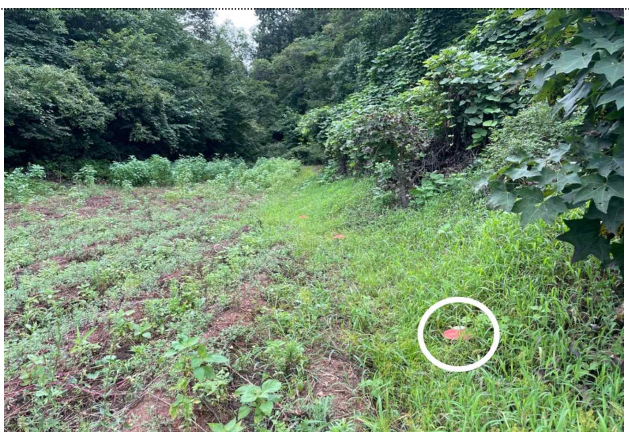
현재 국내에는 쫄쫄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총 8종*이 보고되었으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종에 차이가 있다.

* 활순털진드기(*Leptotrombidium scutellare*), 대잎털진드기(*L. pallidum*), 수염털진드기(*L. palpalis*), 동양털진드기(*L. orientale*), 반도털진드기(*L. zetum*), 사육털진드기(*Neotrombicula japonica*), 조선방망이털진드기 (*Euschoengastia koreaensis*), 들꿩털진드기(*Helenicula miyagawai*)

2025년도 감시 결과, 주로 경남·전남 등 남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주로 활순털진드기가, 강원 북부 및 충남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붙임 2).



털진드기 채집기



채집기 설치 사진

털진드기는 유충기에만 사람이나 동물에 기생하여 체액을 섭취하는 특징이 있다. 여름철 산란된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초가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가을철 기온 변화와 함께 발생밀도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농작업, 추수 및 단풍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털진드기와의 접촉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가을철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팔·긴바지와 장갑 등 피부 노출을 줄이는 옷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즉시 샤워하고 착용한 옷을 세탁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쯔쯔가무시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외활동 후 털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의심되는 가피가 확인되거나 발열·발진 등의 증상이 10일 이내 나타나는 경우에는,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드기 예방 및 관리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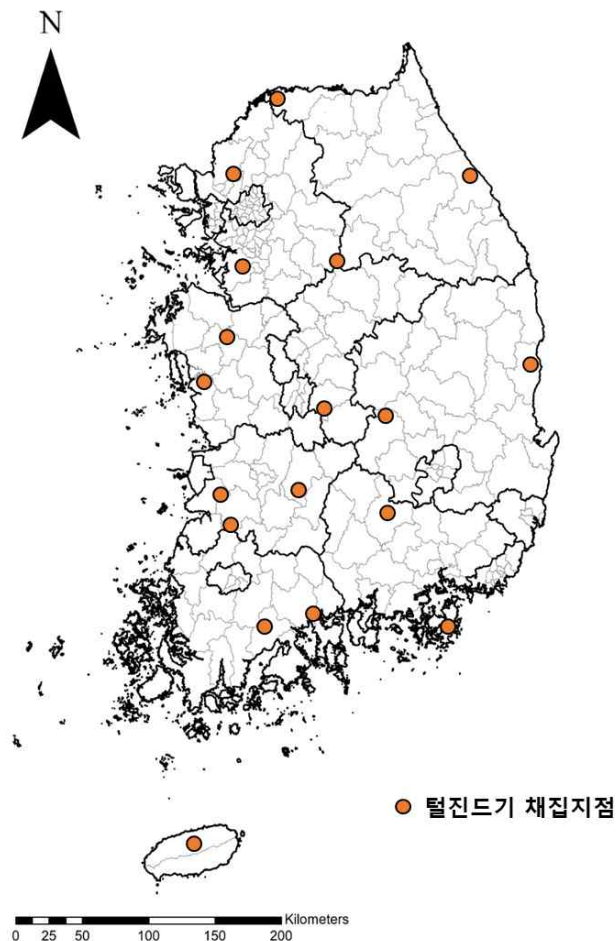
- ①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말기
 - 풀밭에서 앉거나 누울 때는 돛자리 사용하기
- ② 야외활동 시 긴 옷, 목이 긴 양말, 장갑, 모자 등 착용하기
 -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 ③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고 진드기 확인하기
 - 목욕 또는 샤워하면서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관찰하기
 - 귀가 즉시 옷을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확인하기
 - * 털진드기 유충의 크기는 0.3mm 이하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움
 -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 <붙임> 1. 2026년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
 2. 2025년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 결과
 3.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관련 질의응답(Q&A)

담당 부서 <총괄>	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상은	(043-719-8560)
		담당자	연구관	주정원	(043-719-8521)
담당 부서 <협조>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여상구	(043-719-7160)
		담당자	사무관	이현수	(043-719-7161)

○ 털진드기 발생 감시 참여기관 및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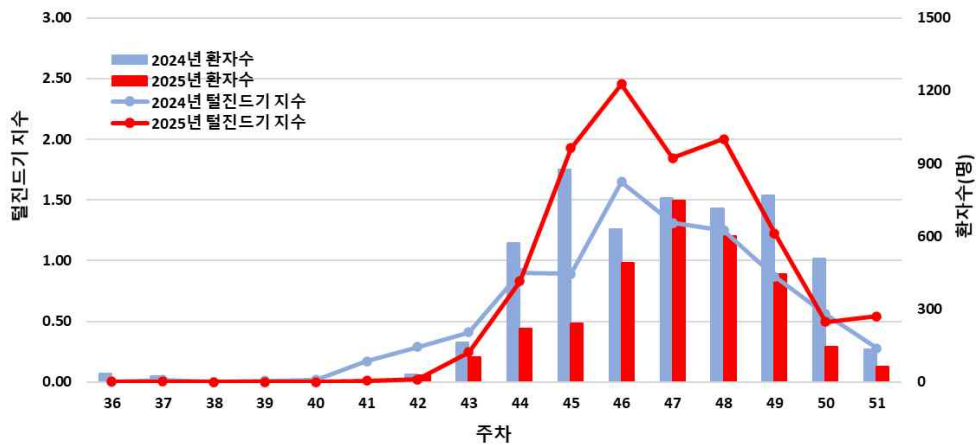
기관명	세부 기관명	감시지역	기관명	세부기관명	감시지역
질병관리청	본청	옥천군	거점센터	연세대학교	강릉시
	호남권대응센터	부안군		순천향대학교	보령시
보건 환경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경북대학교 수 의 과	예산군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전남)	보성군			정읍시
		순천시			거제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경북대학교	합천군
거점센터	인천대학교	화성시			김천시
	삼육대학교	파주시	제주대학교		영덕군
		여주시			제주시



< 2026년 지역별 털진드기 감시 지점 분포 >

○ 털진드기 및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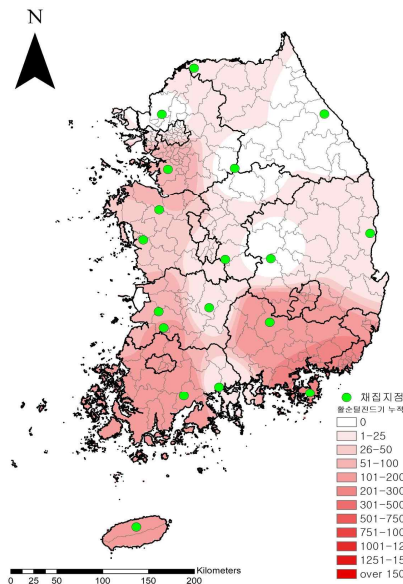
- 털진드기는 10월 중순(43주차)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11월 초(46주차)에 가장 많이 발생
-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털진드기 발생 증가 후 일정 간격(1~3주)을 두고 증가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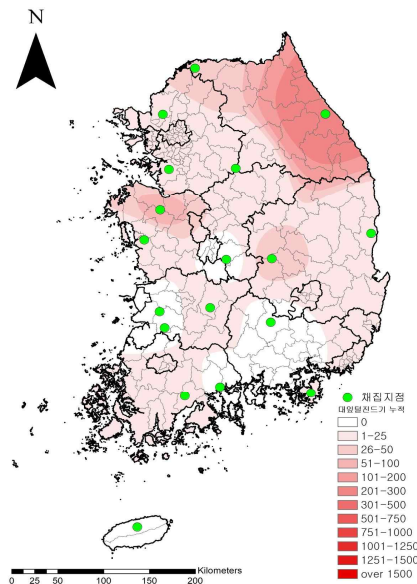
<주차별 털진드기 지수*와 쯔쯔가무시증 환자수(2024~2025년)>

* 털진드기 지수(Trap Index) = 트랩당 7일간 채집된 털진드기 개체수(개체수/트랩수)

○ 털진드기 종류별 지역적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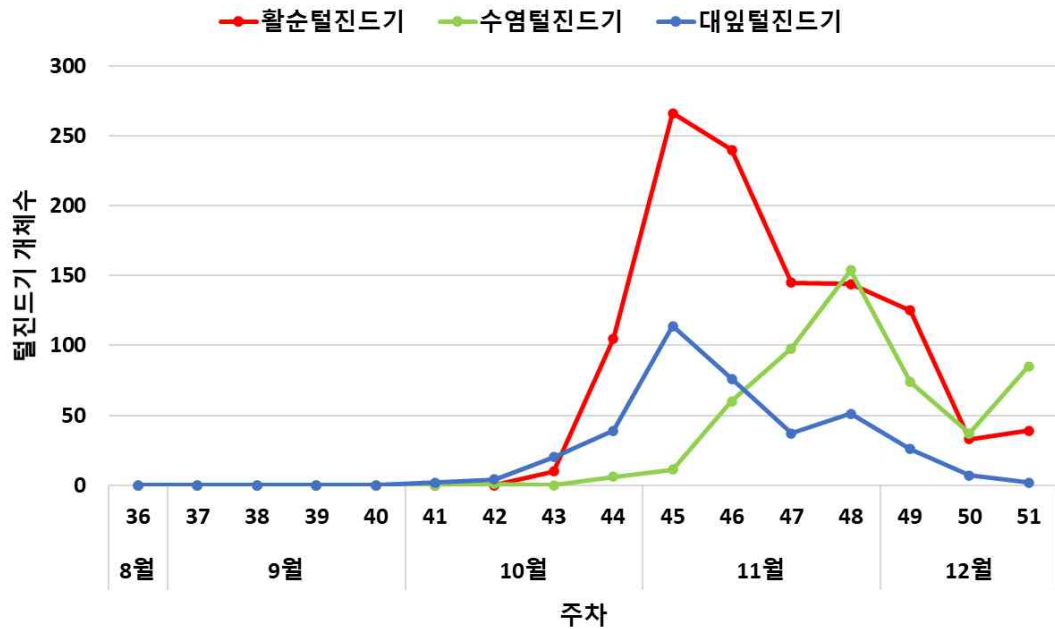
<2025년 활동털진드기 발생 분포>



<2025년 대유했진드기 발생 분포>

○ 주요 매개종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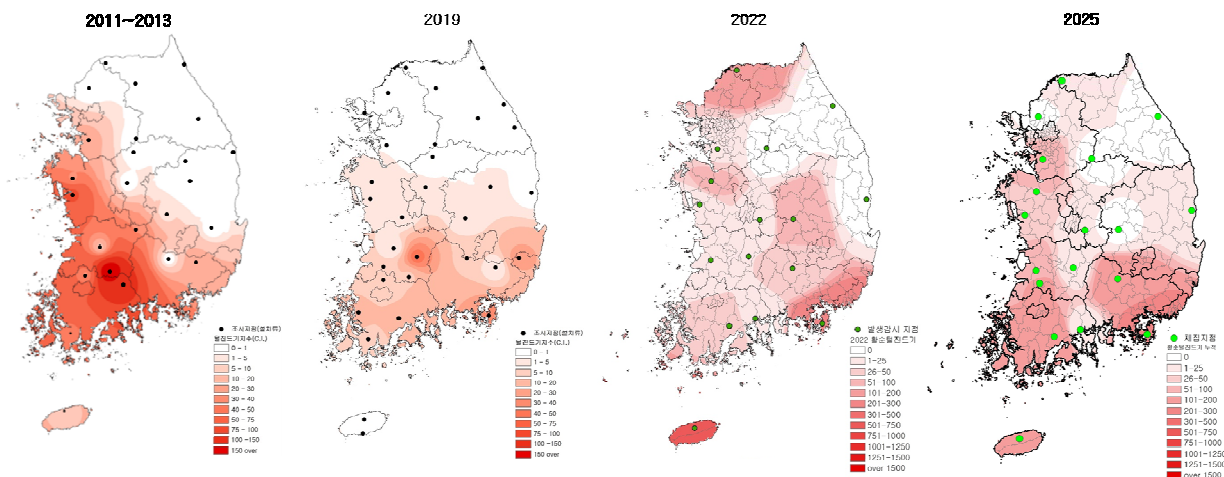
- 활순털진드기 및 대잎털진드기는 10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11월 초에 가장 많이 발생
- 수염털진드기는 10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11월 말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향



<프프가무시증 주요 매개종 주별 개체수(2025년)>

○ 프프가무시증의 주요 매개종인 활순털진드기의 분포지역 확대

- 2010년초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던 활순털진드기가 2020년 이후 전국적인 분포를 보임



<국내 프프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활순털진드기의 분포지역 확대>

Q1. 프프가무시증의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 농작업·야외활동 시 적정 작업복(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착용, 농경지 및 거주지 주변 풀 제거,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않고 휴식 시 돛자리 사용, 농작업·야외활동 후 작업복 세탁하기, 귀가 즉시 목욕·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2. 프프가무시증 증상과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 프프가무시증은 보통 10일 이내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발생하며, 두통,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기침 등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됩니다.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비교적 용이하게 회복되지만,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Q3. 프프가무시증은 왜 가을에 많이 발생하나요?

- 프프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발생합니다. 털진드기 유충은 봄철(3~5월)에도 활동을 하지만 여름철에 산란한 털진드기 알이 초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부화할 때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털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시기인 가을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프프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Q4. 모든 털진드기가 프프가무시증을 일으키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진드기는 세계적으로 4~5만종이 확인되어 있으나, 그 중 털진드기과에 속하는 진드기류만 프프가무시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털진드기과는 60종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프프가무시균 매개종은 대잎털진드기, 활순털진드기, 수염털진드기, 동양털진드기, 반도털진드기, 사육털진드기, 조선방망이털진드기, 들꿩털진드기 등 8종입니다. 이중에서도 프프가무시균에 감염된 진드기 유충만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대표적인 종은 활순털진드기와 대잎털진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Q5. 한번 감염된 사람이 또 감염될 수 있나요?

- 프프가무시증에는 다양한 혈청형이 존재하며, 프프가무시증에서 회복된 환자는 동일한 혈청형에는 일정기간 면역력을 갖게 되나, 다른 혈청형의 균에 감염 되었을 때에는 재감염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